

生活漢字

全廣鎮  
編



# 凡 例

一. 이 글은 《朝鮮日報》에 成均館大 中文學科 全廣鎭 教授가 連載한 『생활한자』에서 拔萃하였다.

一. 뜻풀이는 《표준국어대사전》(국립국어연구원, 1999)을 따랐다.

一. 이 冊 全般에 걸친 記號의 쓰임새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.

- ① 같은 표제어의 뜻풀이가 달라진 경우
- 고유 명사가 연이어 결합한 표제어 표시
- 《 》 인용례 출전 < > 출전
- ¶ 용례 시작 = 동의어
- ㉠ 명사      ㉡ 부사      ㉢ 비슷한 말
- ㉣ 참고 어휘      ㉤ 형용사
- 『건』 건설      『법』 법률      『북』 북한말
- 『생』 생물      『기1』 기계      『기2』 기독교

(…이하 생략)

# 逃 走

가지런할 도 달릴 주

## 도주(逃走)

㉠ 피하여 달아남. ㄴ도망(逃亡).

¶필사의 도주/그 피의자는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./경찰은 범인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철통같은 경계망을 폈다./그들은 부대가 도주를 시작한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. 《이병주, 지리산》

# 弦 月

시위 현 달 월

## 현월(弦月)

㉠ =초승달. ¶그림자가 있던 곳이 차차 밝아 왔다. 그리고 그리로는 현월이 불그스레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. 《김동인, 젊은 그들》

# 硯 滴

벼루 연 물방울 적

## 연적(硯滴)

㉠ 벼루에 먹을 갈 때 쓰는, 물을 담아 두는 그릇. 보통은 도자기로 만들지만 쇠붙이나 옥, 돌 따위로도 만든다. ㄴ수승(水丞)·수적(水滴)·수중승·연수(硯水). ¶청자 연적/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던 마리아는 이때 조용히 일어섰다. 말없이 경상 앞에 꿇어앉아 연적을 집어 들었다. 《한무숙, 만남》





放      꽃을      방      伐      칠      벌  
          놓을

방벌(放伐)

㉠ ①꽃아내어 죽임. ㉡ 방살. ②『역』덕을 잃고 악정을 행하는 임금  
금은 내쳐도 거리낄 바 없다는 중국의 역세(易世) 혁명관. ㉢ 선양  
방벌.

閱      훑어볼      열      覽      볼      람

열람(閱覽)

㉠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. ㉡ 북한 관  
련 서적은 일반인의 열람이 제한되어 있다.

系      이어맬      계      統      거느릴      통

계통(系統)

㉠ ①일정한 체계에 따라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통일적  
조직. ㉡ 소화기 계통/호흡기 계통. ②일의 체계나 순서. ㉢ 계통을 밟  
다/그 사람은 계통을 무시하고 일을 처리한다. ③일정한 분야나  
부문. ㉣ 행정 계통/이 사람은 전기 계통의 일을 합니다. ④하나의  
공통적인 것에서 갈려 나온 갈래. ㉤ 계통이 같은 품종/조생종 계  
통의 작물/계통에 따라 동물을 분류하다/독일어는 영어와 같은  
계통이다. ⑤『생』같은 조상을 가지며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  
의 모임.



嘗      맛볼      상      膽      쓸개      담  
          일찍이

상담(臥薪嘗膽)

㉠ 와신상담(臥薪嘗膽)의 준말. 거북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 
맛본다는 뜻으로,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 
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 
《사기》의 <월세가(越世家)>와 《십팔사략》 등에 나오는 이야  
기로,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의 왕 부차(夫差)가 아버지의 원수를  
갚기 위하여 장작 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월나라의 왕 구천(句  
踐)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하였고, 그에게 패배한 월나라의 왕 구  
천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한 데서 유래한다.

秋      가을      추      波      물결      파

추파(秋波)

㉠ ①가을의 잔잔하고 아름다운 물결. ②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  
하여 은근히 보내는 눈길. ㉡ 추파를 던지다/춘선이 추파를 보내  
는데도 경준은 못 들은 체하고 그대로 앉았다. 《이기영, 신개지》  
③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태도나 기색. ㉢ 추파를 흘리다/신임 사  
장에게 추파를 던지다. ④맑고 아름다운 미인의 눈길. ㉤ 노국 공  
주는 고개를...들어 왕을 건너다본다. 맑고 어진 추파가 잠깐 흔  
들리다가 다시 호수처럼 가라앉는다. 《박종화, 다정불심》





未 아닐 미      安 편안할 안

미안(未安)

㉮ 남에게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움. ㉮미안을 끼치다 / 떡을 받아먹으며 고마움보다 미안에 질려 목이 매었다. / 진정에서 묻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얼마쯤 미안을 느낀 경애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. 《김말봉, 찔레꽃》/ 그 젊은이는 미안 이상의 모욕감으로 얼굴이 빨개져서 천장만을 쳐다보며 이따금 한숨을 지었다. 《최명익, 장삼이사》

果 과일 과      樹 나무 수

과수(果樹)

㉮ =과실나무. ㉮집 앞에 화원이나 꾸미고, 뒤에는 과수나 몇 개 심고... 《나도향, 어머니》

浩 클 호      氣 기운 기

호기(浩氣)

㉮ 호연지기(浩然之氣). ㉮그는 높은 산상의 푸른 호기에 흠뻑 젖었다. ㉮그는 어릴 때부터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넓은 바다를 보는 것으로 호기를 길렀다.



血 피 혈      淚 눈물 루

혈루(血淚)

㉮ 피눈물. ㉮옛날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혈루를 금할 수 없다.

杜 막힐      絕 끊을 절  
팔배나무 두

두절(杜絕)

㉮ 교통이나 통신 따위가 막히거나 끊어짐. 또는 그렇게 함. ㉮연락 두절/교신 두절/통신 두절/향로의 두절.

騎 말 탈 기      馬 말 마

기마(騎馬)

㉮ ①말을 탄. ㉮기승(騎乘)·승마(乘馬). ㉮기마 자세/기마 행렬.  
②타고 다니는 데 쓰는 말.

教 가르칠 교      唆 부추길 사

교사(敎唆)

㉮ 남을 띄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함.





# 已 往

이미 이 갈 왕

## 이왕(已往)

㉡ 지금보다 이전. 『이왕의 일은 다 잊어버리자./우리 학교에 이왕에 오신 일이 있던가요? 《유진오, 김 강사와 T 교수》

㉢ 이왕에(已往-). 『이왕 시작한 바엔 끝을 봐야겠다./이왕 그렇게 된 일, 후회해 봤자 소용없다./이왕 마음 먹고 나선 길이니 떠나되, 어느 정도 세상을 알게 되거든 돌아오도록 해라. 《이문열, 황제를 위하여》/이왕 왔으니 잠깐이라도 들어왔다 가야지, 내가 미안하지 않아. 《심훈, 영원의 미소》

㉣ 기왕

# 愚 弄

어리석을 우 놀릴 룡

## 우롱(愚弄)

㉡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함부로 대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. ‘놀림’으로 순화. 『모욕적인 우롱/우롱을 당하다.

㉣ 기롱(欺弄), 조롱(嘲弄), 조별(詵擲).

# 休 憩

실 휴 실 게

## 휴게(休憩)

㉡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동안 쉼. ≒게휴. 『휴게 시간/휴게 시설.

㉣ 휴식(休息).

# 埋 葬

묻을 매 장례 장

## 매장(埋葬)

㉡ ①시체나 유골 따위를 땅속에 묻음. ≒매유(埋幽). 『단원들이 우르르 달려붙어 흙을 퍼붓기 시작하자 매장은 쉽게 끝났다. 《한수산, 부초》/과질로 죽은 시체는 매장을 하지 않고 이곳에 가져다가 버린다. 《유현종, 들불》②어떤 사람을 사회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『그렇게 비열한 인간은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한다.

㉣ 매평.

# 一 齊

한 일 가지런할 제

## 일제(一齊)

㉡ (일부 명사 앞에 쓰여) 여럿이 한꺼번에 함. 『일제 검거/일제 단속/일제 점검/일제 고사/별군 오천을 돌로 나누어 관군의 퇴로를 막고 일제 기습을 단행했다. 《유현종, 들불》

# 患 難

근심 환 어려울 난

## 환난(患難)

㉡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. ≒환(患). 『환난을 겪다/환난에 빠지다/환난을 극복하다/환난이 닥치다/황 진사와 정 처사도 셋노란 얼굴로 생사를 알 수 없는 황제와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근심하며 앉아 있었다. 《이문열, 황제를 위하여》





# 素餐

본디      소      먹을      찬

## 소찬(素餐)

㉮ 하는 일 없이 녹(祿)을 먹음. 『신들은 삼가 마땅히 더욱 충성을 다하여 소찬의 비난을 면하기를 바라며 항상 붉은 정성을 바쳐서 길이 수하시기를 빕니다. 《번역 세조실록》

# 慈善

사랑할      자      착할      선

## 자선(慈善)

㉮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줌. 『자선 공연/자선을 베풀다/그는 자선이라도 하듯 지폐 몇 장을 꺼내 친구에게 주었다./난 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선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런 것에 기대고 싶진 않구나. 《박완서, 오만과 몽상》

# 獨裁

홀로      독      마를      재

## 독재(獨裁)

㉮ ①특정한 개인, 단체, 계급,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함. 『독재 정권/국민들은 독재에 항거하여 쫓겨하였다. ②『정』=독재 정치.



# 末路

끝      말      길      로

## 말로(末路)

㉮ ①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마지막 무렵. 『망국의 왕으로서 의자왕은 말로가 너무도 비통스러웠고... 《이청준, 춤추는 사제》 ②망하여 가는 마지막 무렵의 모습. 『독재자의 말로.

# 辭歲

말      사      해      세

## 사세(辭歲)

㉮ 묵은해를 보냄. 설날 그믐날 밤이나 그 전날 밤에 집집마다 술자리를 만들어 서로 초대하고 방문하며 웃어른을 만나 뵈다. ㉮ 송년(送年).

# 煉乳

달걀      려      젖      유

## 연유(煉乳)

㉮ 우유를 진공 상태에서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농축한 것. 달일 때에 설탕을 넣은 것은 가당연유라고 하고, 넣지 않은 것은 무당연유라고 하며, 탈지유를 원료로 하는 탈지 가당연유도 있다. ≡당유(糖乳).





快

쾌할 쾌

晴

깬 청

쾌청(快晴)-하다

☞ 구름 한 점 없이 상쾌하도록 날씨가 맑다. ♪ 날씨는 쾌청하고 하늘로는 새털 같은 초가을 날씨의 구름이 낙타 모양을 하고 흘러가고 있었다. <최인호, 잠자는 신화>

☞ 쾌쾌하다.

核

씨 핵

膜

꺼풀 막

핵막(核膜)

☞ 『생』 세포의 핵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껍질.

差

다를 차

減

덜 감

차감(差減)

☞ 비교하여 덜어 냄. 또는 비교하여 줄어든 차이. ♪ 차감 계정/차감 잔액/교육 예산의 차감.

帽

모자 모

標

우듬지 표

모표(帽標)

☞ =모자표. ♪ 학교의 모표/모표를 모자에 붙이다.

干

방패 간

戈

방패 과

간과(干戈)

☞ ① 방패와 창이라는 뜻으로, 전쟁에 쓰는 병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. ≡ 간척(干戚). ♪ 간과의 살기가 어둠 속에서 번쩍이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비명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. <유현종, 들불>  
② 전쟁 또는 병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許

허락할 허

諾

대답할 락

허락(許諾)

☞ 청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줌. ≡ 긍가(肯可). ♪ 허락이 내리다/허락을 구하다/허락을 맡다/허락을 받다/그는 부모님 허락도 없이 장가를 들었다./누구 허락으로 이곳에 들어왔소?/밤 11시까지 돌아온다면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아버지로부터 얻어 냈다./거의 일주일의 조르던 끝에 여행을 가도 좋다는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졌다.

☞ 승낙(承諾). 허가(許可).

得

얻을 득

意

뜻 의

득의(得意)

☞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만족해하거나 뽐냄. ♪ 득의의 미소/득의에 찬 얼굴/그 시험에 자기가 합격이나 한 듯이 약간 득의의 웃음을 띠고 대답하였다. <유진오, 김 강사와 T 교수>

☞ 득심(得心).





# 侮

업신여길 모

# 辱

욕할 욕

모욕(侮辱)

㉡ 깔보고 욕되게 함. ㉢ 모욕을 받다/모욕을 느끼다/모욕을 주다 /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자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다./ 쥐도 안 먹을 테지만 먹는 자리에서 사람을 따돌린다는 건 너무 심한 모욕 같았다. 《박완서, 도시의 흉년》/장군은 갇은 옥지거리로 대대장에게 모욕을 주었다. 《김용성, 리빠똥 장군》

# 富

가멸 부

# 裕

부유할  
넉넉할 유

부유(富裕)

㉡ 재물이 넉넉함. ㉢ 대만 농촌의 부유는 토지 개혁의 성공에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. 《정비석,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》/사람이 건강과 부유와 권세의 세 가지를 가질 수 있을 때... 《김진섭, 인생 예찬》

# 屈

굽을 굴

# 伸

펼칠 신

굴신(屈伸)

㉡ 팔, 다리 따위를 굽혔다 폈다 함. ㉢ 나는 중얼거리면서 이번에는 제법 일어나서 보려고 하였으나 두 다리가 굴신이 잘되지를 않았다. 《변영로, 명정 40년》

# 背

등질 배

# 叛

배반할 반

배반(背反/背叛)

㉡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섬. ㉢ 구역06(遯逆)·반배01(反背)·위반01(委叛). ㉣ 배반 행위/나는 내가 당한 엄청난 배반에 치를 떨었다. 《박완서, 도시의 흉년》/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까지 배반을 당하였다는 쓸쓸한 자기모멸감으로 심장은 터져 버릴 듯이 파도치고 있었다. 《최인호, 잠자는 신화》

㉤ 괴반(乖叛), 괴배(乖背).

# 是

옳을 시

# 非

아닐 비

시비(是非)

㉡ ①옳음과 그름. ㉢ 이비04(理非). ㉣ 시비를 따지다/시비를 가리다/그것은 옳고 그른 시비보다도 우선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. 《채만식, 타류》 ②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. ㉤ 시비가 붙다/시비를 걸다/그는 사소한 시비 끝에 사람을 죽였다.

# 晚

늦을 만

# 成

이룰 성

만성(晩成)

㉡ 늦게 이루거나 이루어짐.







# 財 閥

재물 재 문벌 벌

## 문벌(門閥)

㉠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. ≪가계(家格)·문공(門功) [2] 문지(文地)·문호(門戶) [3] . ≪문벌을 형성하다/문벌이 높다/문벌이 좋다/한 사람은 성균관의 유생이고, 한 사람은 얼마 전까지 오폭 내직을 지내던 알 만한 문벌이었다. ≪서기원, 조선 백자 마리아 상≫

㉡ 가문(家門). 가벌(家閥).

# 發 掘

쏟 발 팔 굴

## 발굴(發掘)

㉠ 땅속이나 큰 덩치의 흙, 돌 더미 따위에 묻혀 있는 것을 찾아 파냄. ≪유적 발굴/지하자원의 발굴/폭격으로 큰 건물이 산산이 부서져서 매몰자의 발굴에만도 열흘이 걸렸다.②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뛰어난 것을 찾아 밝히어 냄. ≪신인 발굴/인재 발굴/모범 사례 발굴.

# 惜 別

아낄 석 나눌 별

## 석별(惜別)

㉠ 서로 애뜻하게 이별함. 또는 그런 이별. ≪석별의 정을 나누다/그들은 석별의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했다./전선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석별과 감격을 표시하는 것이었다. ≪염상섭, 취우≫

# 辯 護

말씀 변 도울 호

## 변호(辯護)

㉠ 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줌. ≪듣자니 혁명은 과학이란 말이 있던데 나는 그게 통 못 미더워. 혁명가의 은유적인 자기 변호거나 지향 또는 희망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야. ≪이문열, 변경≫/자신이 민병석에게 보낸 그 편지도 저들에게 발각되었으리라는 전제 밑에서 대원군에 대한 변호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. ≪유주현, 대한 제국≫ ②『법』법정에서,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. ≪변호를 맡다/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다.

# 驅 逐

몰 구 쫓을 축

## 구축(驅逐)

㉠ 어떤 세력 따위를 몰아서 쫓아냄. ≪사치 풍조 구축/유능하고 실력 있는 교사를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학원으로부터 강리 구축을 한 자가 누군가. ≪채만식, 돼지≫  
㉡ 구축(驅出).

# 聖 誕

성인 거룩할 성 태어날 탄

## 성탄(聖誕)

㉠ 성인이나 임금의 탄생. ②『기2』=성탄절. ≪성탄 선물/성탄 예배/성탄을 축하하다.





# 賤 視

천할 천 볼 시

## 천시(賤視)

㉠ 업신여겨 낮게 보거나 천하게 여김. ㉡ 옛날의 광대극이 천시를 받고 쇠퇴해 버린 그 원인의 하나가 바로 장죽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《이어령, 흙 속에 저 바람 속에》

㉢ 천대(賤待).

# 徐 行

느릴 서 다닐 행

## 서행(徐行)

㉠ 사람이나 차가 천천히 감. ㉡ 서행 운전/얼핏 보며, 울긋불긋한 떼거지인데 맨 앞에는 광목천을 감은 지프차가 서행으로 가까워 오고 있었다. 《이호철, 소시민》

㉢ 완보(緩步). ㉣ 완행(緩行).

# 貌 樣

얼굴 모 모양 양

## 모양(貌樣/模樣)

① 겉으로 나타나는 생김새나 됃됨이 ② 비교(比較)되는 대상(對象) 다음에 쓰여 ‘~처럼’의 뜻. 주로 ‘모양(模樣)’으로 쓰이며, ‘어떤 식이나 방법(方法)으로’의 뜻 ③ ‘이다’앞에 쓰이어, 짐작(斟酌)이나 추측(推測)의 뜻



# 終 盤

끝날 종 소반 반

## 종반(終盤)

㉠ ① 운동 경기, 장기 따위에서 승패가 마무리되는 단계. ㉡ 경기 종반에 점수 차이를 내다/바둑은 종반으로 치달았다. ③ 어떤 일이나 일정한 기간의 끝판에 가까운 단계. ㉣ 90년대 종반에 이르다/대회 종반에 접어들었을 때 사고가 일어났다.

# 惹 起

이끌 야 일어날 기

## 야기(惹起)

㉠ 일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.

# 周 旋

두루 주 돌 선

## 주선(周旋)

㉠ ①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씀. ㉡ 주선을 받다/주선을 부탁하다/그녀는 친척 어른의 주선으로 선을 보았다./사원들이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비서에게 주선을 요청해야만 했다./누군가가 아이는 거두어 주어야 하는데 자네가 주선 좀 해보게. 《박경리, 토지》/그는...집에서 쉬다가 그의 형 손팔만이의 주선으로 달포 전부터 미곡전 일을 거들어 주고 있었다. 《문순태, 타오르는 강》 ③ 『법』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삼국이 분쟁 당사국 간의 교섭을 진행하는 일.





# 廢業

내버릴 폐 업 업

## 폐업(廢業)

㉔ ①직업이나 영업을 그만둠. ㉕ 폐업 신고/폐업을 단행하다/시민의 7, 8할은 성외로 도망치고 상가는 폐업 상태이며 잔류한 빈민들은 생계를 이을 수가 없어서 민심이 흉악하다. 《유주현, 대한 제국》 ②=폐학.

# 寸暇

마디 촌 겨를 가

## 촌가(寸暇)

㉔ 얼마 안 되는 짧은 겨를. ㉕ 촌극(寸隙)·촌한(寸閑).

# 矯正

바로잡을 교 바를 정

## 교정(矯正)

㉔ ①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. ㉕ 교구(矯擧)·교직(矯直). ㉕ 말더듬이 교정/척추 교정. ②『법』교도소나 소년원 따위에서 재소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음. ㉕ 갱생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. ③『북』새로 측정하여 다시 고쳐 설정함. ㉕ 철로의 교정/안경의 교정.

㉕ 광정(匡正). 확정(廓正).

# 呼訴

부를 호 하소연할 소

## 호소(呼訴)

㉔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하소연함. ㉕ 그의 절실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/복도는 새로운 부상병이 도착해서 흡사 지옥처럼 비명과 고향이 진동했다. 사방에서 달려 달라는 호느낌 섞인 호소가 들려왔고... 《홍성원, 육이오》

# 憂慮

근심할 우 생각할 려

## 우려(憂慮)

㉔ 근심하거나 걱정함. 또는 그 근심과 걱정. ㉕ 우려를 낳다/환경보호 단체는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했다./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은 아이들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.

# 敦篤

도타울 돈 도타울 독

## 돈독(敦篤)-하다

㉔ 도탑고 성실하다. ㉕ 돈독한 우정/우애가 돈독하다/그는 신앙심이 돈독하다./아들들은 드물게 보는 효자일 뿐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도 그럴 수 없이 돈독하고 깊었다. 《이병주, 행복어 사전》

㉕ 독후하다. 돈후하다.





空      欄  
빌      공      난간      란

공란(空欄)

㉠ 책, 서류, 공책 따위의 지면에 글자 없이 비워 둔 칸이나 줄.  
‘빈칸’으로 순화. ㉡ 맞는 답을 공란에 적어 넣으시오./그 공란은  
시사 칼럼이 들어갈 자리이다.

㉢ 공백(空白). 여백(餘白).

目      擊  
눈      목      부딪칠      격

목격(目擊)

㉠ 눈으로 직접 봄. ㉡ 목견(目見)·목도(目睹). ㉢ 목격 증언/그는  
자신이 목격이나 한 듯이 이야기했다. ㉣ 『북』『어』북한의 일부  
문법적 견해에서, 과거에 목격한 사실을 현재에 와서 진술하는  
일. ‘-다, -다-, -던.’의 어미가 결합한 ‘-더라, -더니라, -버디다, -  
던데, -던바’ 따위에 나타나는 의미를 이르는 말이다.

謄      本  
베낄      등      뿌리      본

등본(謄本)

㉠ 『법』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끼. 또는 그런 서류.

㉡ 초본(抄本).



趨      向  
달릴      추      향할      향

추향(趨向)

㉠ 대세를 좇아감. ㉡ 대세가 흘러가는 방향. ㉢ 마음에 끌리어  
따라감.

暖      爐  
따뜻할      난      화로      로

난로(暖爐/煖爐)

㉠ 난방 장치의 하나. 나무, 석탄, 석유, 가스 따위의 연료를  
때거나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내어 방 안의 온도를 올리는 기구  
이다. ㉡ 스토브. ㉢ 그는 할머니를 불러서 장작을 한 아름 얻어 가  
지고 방에 돌아와서 난로에 불을 지폈다. 《최인훈, 구운몽》/툭  
밥 난로는 별경게 달아올랐고 밖에서 얼다 들어온 내 얼굴은 뜨  
거운 열기에 취하는 것 같았다. 《김용성, 도둑 일기》 ㉣ 난롯  
불. ㉤ 난로를 쪼다/난로를 피우다.

「참」 히터.

竝      列  
나란히      병      벌릴      렬

병렬(竝列)

㉠ 나란히 늘어섬. 또는 나란히 늘어놓음. ㉡ 『전』=병렬연결.  
「참」 직렬(直列).





# 紊

어지러울 문

# 亂

어지러울 난

문란(紊亂)

㉮ 도덕, 질서, 규범 따위가 어지러움. ㉮ 풍기 문란/기강의 문란.

# 土

흙 토

# 壤

흙 양

토양(土壤)

㉮ ①=흙01. ②식물에 영양을 공급하여 자라게 할 수 있는 흙. ㉮ 흙을 좀 담아 가서, 토양 검정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다. < 김춘복, 쌈짓골 >/비옥한 토양이 아닌 데서 어떻게 좋은 수확물을 많이 얻을 수 있겠소. < 이병주, 지리산 > ③어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밑받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㉮ 풍부한 독서와 경험이 그가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토양이었다./거기에서 얻어지는 지식은 또 지혜를 기르는 데 살찐 토양이 되어 주었다. < 박경리, 토지 >

# 僻

후미질 벽

# 地

땅 지

벽지(僻地)

㉮ 외따로 뚝 떨어져 있는 궁벽한 땅. 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의 혜택이 적은 곳을 이른다. < 벽경01 (僻境). ㉮ 낙도 및 벽지 주민을 위한 진료 활동. 「비」 두메. 벽유(僻幽). 심향.



# 喜

기쁨 희

# 悅

기쁨 열

희열(喜悅)

㉮ 기쁨과 즐거움. 또는 기뻐하고 즐거워함. ㉮ 희열에 넘치다/희열을 느끼다/희열을 맛보다/희열을 만끽하다/그녀는 춤을 추는 무당의 희열에 차 있는 얼굴에 초점을 맞추었다. < 문순태, 피아골 >

「비」 혼열(欣悅). 희락(喜樂).

# 暝

어두울 명

# 福

복 복

명복(冥福)

㉮ ①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. ㉮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/그 날 우리는 고모가 마련해 준 차례 상 앞에서 절을 하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명복을 빌었다. < 김용성, 도둑 일기 > ②『불』죽은 뒤에 받는 복덕.

# 考

생각할 고

# 慮

생각할 려

고려(考慮)

㉮ 생각하고 헤아려 봄. < 고사08(考思). ㉮ 그 문제는 아직 고려 중이다./여유가 있으면 나 같은 상대도 대상으로 진지하게 고려를 좀 해 줘. < 김원우, 짐승의 시간 >





## 節

마디 절

## 概

평미례 대개 개

## 절개(節概/節介)

㉡ ①신념,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깨끗한 태도. ㄴ개절(介節)·절(節) ② . ㉢『송죽같이 굳은 절개/절개를 지키다/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지조와 절개로써 충성을 다하다./성정이 돈후하여 사람을 포용하는 힘이 많을 뿐 아니라 의기가 뛰어나고 절개가 굳었다. 《박종화, 다정불심》 ②지조와 정조를 깨끗하게 지키는 여자의 품성. ㉣『춘향은 이 도령이 떠난 후에도 절개를 지켰다./충신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열녀도 절개를 지켜 두 남군을 섬기지 않는다./예전에는 절개가 굳은 여인에게 열녀문을 세워 주었다.

## 慶

경사 경

## 弔

조상할 조

## 경조(慶弔)

㉡ ①경사스러움과 불행함. ②경축하는 것과 조문(弔問)하는 일. ㄴ조하(弔賀). 「비」 <1>길흉(吉凶).

## 客

손 객

## 舍

집 사

## 객사(客舍)

㉡ ①나그네를 치거나 묵게 하는 집. ㄴ객관(客館)·노실(路室). ②『역』고려·조선 시대에, 각 고을에 설치하여 외국 사신이나 다른 곳에서 온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게 하던 숙소. ㄴ객관(客館)·관사(館舍)·관소(館所). 「비」 <1>여관(旅館).

## 露

이슬 로

## 出

날 출

## 노출(露出)

㉡ ①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냄. ㉢『감정 노출/비밀 노출/노출이 심한 옷/보름이 가까워서 호 속에서는 달빛으로 편지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아 이렇게 노출이 잘되는 밤에 적이 올 리가 없다고 병사들은 마음을 놓았다. 《안정효, 하얀 전쟁》 ②『연』사진기에서,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셔터가 열려 있는 시간만큼 필름이나 건판에 비추는 일. ㄴ노광(露光). ㉣『노출 부족/노출 시간/밝은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노출을 줄여야 한다.

## 逮

잡을 체

## 捕

사로잡을 포

## 체포(逮捕)

㉡ 『법』 ①형법에서,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. ②형사 소송법에서, 검찰 수사관이나 사법 경찰관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잡아서 일정 기간 유치하는 일. 또는 그런 강제 처분.





# 軌 道

바퀴자국 궤 길 도

## 궤도(軌道)

㉮ ①수레가 지나간 바퀴자국이 난 길. ㄴ궤로(軌路) 〔1〕. ②일이 발전하는 정상적이며 본격적인 방향과 단계. ㉮궤도를 벗어나다/정상 궤도에 오르다/그는 우연한 기회에 인생의 궤도가 바뀌어 소설가가 되었다./강화 후의 일본과 한국의 궤도는 여기로부터 놓아져 나아갑니다. 《김소운, 일본의 두 얼굴》③『교2』=선로04(線路) 〔1〕. ㉮기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다.④『천』행성, 혜성, 인공위성 따위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다른 천체의 둘레를 돌면서 그리는 곡선의 길. ㉮태양의 바깥 궤도를 도는 행성/인공위성을 지구의 궤도 위로 쏘아 올렸다.

# 托 鉢

쟁반 탁 바리때 발

## 탁발(托鉢)

㉮ 『불』도를 닦는 중이 경문(經文)을 외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동냥하는 일. 가장 간단한 생활을 표방하는 동시에 아집(我執)과 아만(我慢)을 없애고, 보시하는 이의 복덕을 길러 주는 공덕이 있다고 하여 부처 당시부터 행하였다. ㄴ행걸.

# 頌 祝

기릴 송 빌 축

## 송축(頌祝)

㉮ 경사를 기리고 축하함. ㄴ송도(禱). ㉮악장은 신왕조에 대한 찬양과 송축의 필요에 따라 나타난 양식이다.



# 頻 繁

자주 빈 많을 번

## 빈번(頻繁)-하다

「형」번거로울 정도로 도수(度數)가 잦다. ㉮빈번한 사건 발생/왕래가 빈번하다/전화 고장이 빈번하다/최근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.

# 召 命

부를 소 목숨 명

## 소명(召命)

㉮ ①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. ㉮소명을 받들다. ②『기2』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. '부름'으로 순화. ㉮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성직자가 되었다.

# 瓦 解

기와 와 풀 해

## 와해(瓦解)

㉮ 기와가 깨진다는 뜻으로,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짐을 이르는 말. ㉮공산 체제의 와해/뛰니 뛰니 해도 동료 간의 화목이 제일이거든. 인화를 도모하지 않고는 어떤 단체도 와해가 되는 법이니까. 《오유권, 대지의 학대》  
「비」분봉.





# 趣 뜻 취 旨 뜻 지

## 취지(取旨)

㉡ 『역』 임금에게 허락을 받던 일. ㉢ 고신(告身)을 추탈(追奪)당한 자가 1년이 차지 않으면 취지의 예에 있지 못하는 것도 또한 편하지 못합니다. 《번역 문종실록》

# 竹 대 죽 鹽 소금 염

## 죽염(竹鹽)

㉡ 『약』 한쪽이 막힌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다져 넣고 황토로 봉(封)한 후, 높은 열에 아홉 번 거듭 구워 내어 얻은 가루.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간염 따위의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쓴다.

# 專 오로지 전 橫 가로 횡

## 전횡(專橫)

㉡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함. ‘독선적 행위’, ‘마음대로 함’으로 순화. ㉢ 전횡을 일삼다/전횡을 휘두르다/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과 전횡을 통치 기능의 전부로 하던 권력의 사냥개들은 추호의 동요도 일으키지 않았다. 《신상운, 심야의 정담》

# 當 당할 당 爲 할 위

## 당위(當爲)

㉡ ①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것. ②『철』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. 또는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것. ㉢ 졸렌(Sollen). 「참」 존재.

# 豪 호걸 호 言 말씀 언

## 호언(豪言)

㉡ 의기양양하여 호기롭게 말함. 또는 그런 말. ㉢ 호어(豪語). ㉣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노라고 호언을 한 뒤에 사지로 가신 명 형이 오히려 부럽소이다. 《김동인, 젊은 그들》

# 寬 너그러울 관 容 얼굴 답을 용

## 관용(寬容)

㉡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. 또는 그런 용서. ㉢ 아용(阿容). ㉣ 관용을 베풀다/이번 한 번만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개과천선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.







# 智

슬기 지

# 勇

날쌔 용

지용(智勇)

㉡ 지혜와 용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. 능용지(勇智). ㉢ 지용을 겸비하다.

# 寡

적을 과

# 慾

욕심 욕

과욕(寡慾)

㉡ 욕심이 적음. 또는 그 욕심.

# 指

손가락 지

# 揮

휘두를 휘

지휘(指揮/指麾)

㉡ ①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단체의 행동을 통솔함. ㉢ 대장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다/중대원들은 중대장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적을 에워쌌다. ② 『음』합창·합주 따위에서, 많은 사람의 노래나 연주가 예술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앞에서 이끄는 일. 주로 손이나 몸동작으로 지시한다. ㉢ 청중들은 지휘자의 지휘 아래 연주가 시작되자 조용히 무대를 주시했다. ③ 손님이 요릿집을 예약하면서, 기생을 불러오도록 지시하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. ㉢ 그녀는 지휘를 받아 요릿집으로 갔다.

# 縫

꿰맬 봉

# 製

지을 제

봉제(縫製)

㉡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나 완구 따위의 제품을 만들. ㉢ 봉제 인형.

# 浦

개 포

# 口

입 구

포구(浦口)

㉡ 냇물이나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어귀. 배가 드나드는 개의 어귀. ㉢ 그의 고향은 남해안 어느 조그만 포구 근처이다./멀리 포구를 오가는 배의 희미한 불빛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. <황석영, 영등포 타령>

# 皮

가죽 피

# 膚

살갗 부

피부(皮膚)

㉡ 『동』 척추동물의 몸을 싸고 있는 조직. 신체 보호, 체온 조절, 배설, 피부 호흡 따위의 작용을 한다. ㉢ 건성 피부/피부에 종기가 생기다/피부가 곱다/아기는 피부가 부드럽다./피부가 약해 쉽게 짓무른다./시원한 바람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다.





緣

가선 연

由

말미암을 유

연유(緣由)

㉮ =사유(事由). ㉮연유를 묻다/연유를 캐다/연유를 털어놓다/무슨 연유로 이제야 도착했지?/그는 김 과장이 사표를 내게 된 연유를 잘 알고 있었다./그에게 거짓말을 해 가면서 장 서방을 구하려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연유가 있으리라 헤아렸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서운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. 《문순태, 타오르는 강》

和

화할 화

睦

화목할 목

화목(和睦)

㉮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. ㉮옹화(雍和)·집목(輯睦). ㉮집안의 화목을 깨뜨리다/뒤통수 해도 동료 간의 화목이 제일이다./신임 구청장은 주민들의 돈독한 신의와 화목을 매우 강조하였다./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그는 식구들과의 화목을 그 어느 때보다도 도탑게 했다. 《박완서, 오만과 몽상》

啓

열 계

蒙

입을 몽

계몽(啓蒙)

㉮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. ㉮계명(啓明)·발몽(發蒙).

梨

배나무 리

園

동산 원

이원(梨園)

㉮ ①배나무 동산. ②『역』중국 당나라 때, 현종이 몸소 배우(俳優)의 기술을 가르치던 곳. 오늘날 뜻이 바뀌어 연예계, 극단, 배우들의 사회 따위를 이른다. ③『역』=교방(敎坊). ④『역』=장악원.

苗

모종 묘

木

나무 목

묘목(苗木)

㉮ 옮겨 심는 어린나무. ‘나무’, ‘나무모’로 순화. ㉮모나무·모종나무. ㉮식목일에 묘목을 정성 들여 심었다.

付

줄 부

託

부탁할 탁

부탁(付託)

㉮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청하거나 맡김. 또는 그 일거리. ㉮부탁 말씀/부탁 편지/부탁을 들어주다/부탁을 받다/나한테 어려운 부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./제대한다는 걸 이유로 개인적인 부탁마저 거절하는 게 어쩐지 야박스럽게 여겨지는 거였다. 《황석영, 낙타 눈깔》





# 桑 海

뽕나무 상 바다 해

## 상해(桑海)

☐ =상전벽해(桑田碧海).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,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≡벽해상전·상벽(桑碧)·상전창해·상해(桑海)·상해지변·창상(滄桑)·창해상전.

「비」 창상지변. 「참」 고안심곡.

# 碩 學

클 석 배울 학

## 석학(碩學)

☐ 학식이 많고 깊은 사람. ≡석사(碩師). 『다른 사람이라면 모르되 당대 석학인 다산이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은 많은 교우들을 실망시켰다. ≪한무숙, 만남≫

「비」 대학자.

# 紛 糾

헝클어질 분 엮힐 규

## 분규(紛糾)

☐ 이해나 주장이 뒤얽혀서 말썽이 많고 시끄러움. 『분규 해결/분규가 발생하다/분규를 일으키다/분규가 타결되다/돈에 관계된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, 이 젊은이가 나를 찾아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. ≪송기숙, 자랏골의 비가≫



# 敷 衍

펼 부 넘칠 연

## 부연(敷衍/敷演)

☐ ①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자세히 말함. 『부연 설명. ②늘려서 널리 펼.

# 曲 屏

굽을 곡 병풍 병

## 곡병(曲屏)

☐ ①=머릿병풍. ②=가리개.

# 分 析

나눌 분 가를 쪼갤 석

## 분석(分析)

☐ ①엮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. 『심리 분석/원인 분석/자료의 분석을 마쳤다./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겁낼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의 분석과 판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. ≪이병주, 관부 연락선≫②『논』개념이나 문장을 보다 단순한 개념이나 문장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명료하게 함. ③『철』복잡한 현상이나 대상 또는 개념을,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는 일. ④『화』물질의 성분, 즉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, 단체, 원자, 분자의 조성 and 함량 따위를 물리 화학적 방법을 써서 알아내는 일. 또는 그런 조작. 일반적으로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으로 크게 나눈다.





今 이제 금      昔 옛날 석

금석(今昔)

㉮ 지금과 옛적을 아울러 이르는 말. ㉮금석을 막론하고 돈 이야  
기란 참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다. 《변영로, 명정 40년》  
「비」 금고(今古).

庸 쓸 용      劣 못할 렬

용렬(庸劣)-하다

「형」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하다. ㉮용렬한 위인/ 그는 매  
사에 하는 행동이 용렬하기 짝이 없다./ 조심을 하느라고 머뭇거  
리면 둔하고 용렬하다고 버락이고, 잽싸게 눈치를 채고 몸을 늘  
리면 버릇없이 내댄다고 꾸중을 했다. 《한무숙, 어둠에 갇힌 불  
꽃들》/ 이제 결사대를 조직하고 백제를 쳐들어가려 하니 용렬한  
생각인지는 모르나 집안 생각이 난다. 《홍효민, 신라 통일》  
「비」 우열하다

留 머무를 류      念 생각할 념

유념(留念)

㉮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함.



箱 상자 상      子 아들  
어조사 자

상자(箱子)

㉮ ①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나무, 대나무, 두꺼운 종이 같은  
것으로 만든 네모난 그릇. ㉮케이크 상자/ 상자를 열다/ 물건을 상  
자에 담아 운반하다/ 소포로 배달된 상자 뚜껑을 여니 옷이 들어  
있었다./ 장군이 드디어 등 뒤의 대령으로부터 훈장이 들어 있는  
작은 상자를 받아 들었다. 《홍성원, 육이오》② (수량을 나타내  
는 말 뒤에 쓰여) 물건을 ‘①’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. ㉮라  
면 한 상자/ 사과 세 상자/ 음료수 몇 상자만 옮겨 주시오.

畫 그림 화      幅 폭 폭

화폭(畫幅)

㉮ 그림을 그려 놓은 천이나 종이의 조각. ㉮도폭(圖幅). ㉮가을  
풍경을 화폭에 담다.  
「참」 서폭.

制 마를 제      壓 누를 압

제압(制壓)

㉮ 위력이나 위엄으로 세력이나 기세 따위를 억눌러서 통제함. ㉮  
반대파의 제압/ 제압을 당하다/ 단번에 완전 제압을 했는지 적 쪽  
에선 응사도 없었다. 《이원규, 훈장과 굴레》





# 詐

속일 사

# 稱

일컬을 칭

## 사칭(詐稱)

㉮ 이름, 직업, 나이, 주소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 이름. ㉮ 공무원 사칭/장관 사칭.

「비」 모명. 모칭(冒稱).

# 縮

줄일 축

# 小

작을 소

## 축소(縮小)

㉮ 모양이나 규모 따위를 줄여서 작게 함. ㉮ 축소 복사/기구 축소/군비 축소/예산 축소.

# 損

덜 손

# 害

해칠 해

## 손해(損害)

㉮ ①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밀집. ㉮ 손(損)·해손(害損). ㉮ 손해 가다/손해를 보다/손해를 끼치다/손해를 보상하다/재산상의 손해가 막심하다/이번 거래에서는 손해가 약 오백만 원에 달한다./회사에서는 불경기 때문에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서 손해가 많다고 임시 휴업을 선언하였다. ②해를 입음. ㉮ 손(損)·해손(害損). ㉮ 한 대라도 맞으면 자기 손해니까 알아서 행동해라./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외국어를 배워 두면 손해는 아니다./불은 잘못 다루게 되면 생명과 재산을 잃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.

# 支

가를 지

# 援

당길 원

## 지원(支援)

㉮ 지지하여 도움. ㉮ 지원 대책/자금 지원/지원을 아끼지 않다/지원이 끊기다/무전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중대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의 지원은 기대하지 말라는 공허한 외침뿐이었다.

「비」 뒷받침.

# 苦

쓸 고

# 楚

가시나무 초

## 고초(苦楚)

㉮ =고난. ㉮ 고초를 겪다/그분은 끝까지 왜경에게 굴하지 않아 고초가 더욱 심했다고 한다./범인으로 몰려 경찰서에 끌려간 후 그가 겪은 고초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./낙오병은 갖은 고초 끝에 부대에 도착했다./고모부는 마침내 부동산 사기 및 취직 사기로 피소되어 한동안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. <윤홍길, 무제>

# 精

정신  
자세할 정

# 誠

정성 성

## 정성(精誠)

㉮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. ㉮ 정성 어린 선물/정성을 들이다/정성을 다하다/정성을 모으다/정성을 바치다/정성이 지극하다/정성이 가득하다/종이 상전을 그렇게 정성으로 섬겼을까? <김동인, 젊은 그들>





# 貴

귀할 귀

# 庚

나이  
일곱째 천간 경

귀경(貴庚)

㉮ 듣는 이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. ㉮ 저는 마흔셋입니다만, 선생님의 귀경은 어떻게 되십니까?

# 類

무리 류

# 似

같을 사

유사(類似)

㉮ (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) 서로 비슷함. ㉮ 유사 단체.

# 兼

겸할 겸

# 備

갖출 비

겸비(兼備)

㉮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. ‘두루 갖추’으로 순화. ㉮ 문무 겸비의 장군/강건과 온유의 겸비.

# 强

굳셀 강

# 化

되화

강화(強化)

㉮ ①세력이나 힘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함. ㉮ 신체 강화 훈련/군사력 강화/왕권 강화. ②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임. ㉮ 훈련의 강화/국제 경쟁력 강화/고객 서비스 강화.



# 所

바 소

# 聞

들을 문

소문(所聞)

㉮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. ㉮ 성문(聲聞)·성식(聲息). ㉮ 소문이 돌다/소문이 자자하다/곧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다./청년 장군 정기룡이 상주를 탈환했다는 소문은 이웃 골 의기 있는 선비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. 《박종화, 임진왜란》

# 世

세상 세

# 俗

풍속 속

세속(世俗)

㉮ ①=세상. ㉮ 세속을 떠나 살다/세속에 시달리다/세속을 등지다/그는 세속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./교황은 겨우 부러진 가이사의 검 토막밖에 지니지 못한 세속의 군주들 위에 군림하였소. 《이문열, 영웅 시대》②세상의 일반적인 풍속. ㉮ 세속을 따르다/세속에 물들다/세속에 얽매이다. ③『불』=속세(俗世).

# 能

능할 능

# 通

통할 통

능통(能通)

「형」【...에】 사물의 이치에 흔히 통달하다. ‘아주 잘함’으로 순화. ㉮ 외국어에 능통하다./그는 일 처리에 능통하다./한 가지 기술에 능통하면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된다./한문을 잘하는 국사 선생이 불어까지 능통한 데 놀란 청중의 감동이 눈에 보이는 듯하였다. 《김성환, 자유인》





康

편안할 강

樂

즐길 락

강락(康樂)

㉟ 몸이 편안하여 마음이 즐거움.

「비」 안락(安樂)

理

다스릴 리

致

이를 치

이치(理致)

㉟ 사물의 정당한 조리(條理). 또는 도리에 맞는 취지. ㄴ염도(厭觀). ㉟『자연의 이치/이치에 맞다/이치에 어긋나다/이치를 따지다/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.』

靑

푸를 청

雲

구름 운

청운(靑雲)

㉟ ①푸른 빛깔의 구름. ②높은 지위나 벼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㉟『청운에 뜻을 두고 학업에 열중하다.③『북』속세를 떠나 은거하는 생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』

授

줄 수

受

받을 수

수수(授受)

㉟ 물품을 주고받음. ㄴ여수(與受).

龍

용 용

顏

낫 안

용안(龍顏)

㉟ 임금의 얼굴을 높여 이르는 말. ㄴ성안(聖顏)·옥안(玉顏)·천안(天顏). ㉟『신의 병이 이렇게 되었으니 금일 이후로 다시 용안을 뵈올 수 없을 것입니다./임금 선조는 친히 장계를 받아 읽은 뒤에 용안에 가득히 기쁜 웃음을 띠고...』 &lt;박종화, 임진왜란&gt;

藥

약 약

劑

약 지을 제

약제(藥劑)

㉟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조제한 약. ㄴ약품. ㉟『진맥을 하고 약제를 짓기 위해 읍내를 나들이한 뒤 넉 달 만에 나왔건만 안천충의 사랑방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.』 &lt;김원일, 불의 제전&gt;





# 家 庭

집 가 뜰 정

## 가정(家庭)

㉠ ①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. 『유럽 여행 중 우연히 독일인 가정에 초대받았다./그분은 바로 어느 시골의 엄한 가정에 태어나 그 당시의 관습대로 어렸을 때 장가를 들었다. <박종홍, 새날의 지성>/지아비를 사랑하면서 따뜻한 가정을 꾸려 가고 싶은 욕심은 그녀의 현재의 생존 형편에서는 하나의 꿈이고 사치고 신기루이다. <김원우, 짐승의 시간> ②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. 『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다/선생은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일하느라고 자기 가정을 돌볼 사이가 없었다./이런 일일수록 동네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끼리 단합을 잘해야 하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화목해야 합니다. <송기숙, 암태도>/현장 사람들 중에는 총각 때 경험 삼아 일하리 나왔다는 축도 없지 않았으나, 가정을 가진 사람은 거의 모두가 돈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었다. <윤후명, 별보다 멀리>

# 侍 下

모실 시 아래 하

## 시하(侍下)

㉠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있는 처지. 또는 그런 처지의 사람. 『엄부형 시하/너는 시하 사람이라, 네 마음으로 정한 혼인을 너의 부모가 혹 허락지 아니하시면... <이인직, 모란봉>/모친 시하에 있다가 지난달에 모친이 돌아가신 고로 이 사람의 신세가 가련한 지두에 빠졌습니다. <최찬식, 금강문>

# 整 頓

가지런할 정 조아릴 돈

## 정돈(整頓)

㉠ ①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 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함. 『장내 정돈/책상 정돈/정돈이 아직 덜 끝나다.②『북』『수』이항할 것을 이항하고, 동류항들은 모두 그 함으로 바꾸어 놓는 일.

# 循 環

쫓을 순 고리 환

## 순환(循環)

㉠ ①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돌. 또는 그런 과정. ‘이어 돌’, ‘잇따라 돌’으로 순화. 『물의 순환/혈액의 순환/계절의 순환/순환 버스/순환 열차.②돈을 운영함. 『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./돈 순환이 어렵다. ③『컴』=루프.

# 艦 艇

싸움배 함 거룻배 정

## 함정(艦艇)

㉠ 『군』 크거나 작은 군사용 배를 통틀어 이르는 말. 군함, 구축함, 어뢰정, 소해정 따위를 이른다. ≡주함.







孤

외로울 고

蝶

나비 접

고접(孤蝶)

㉟ ① 짝이 없는 외로운 나비. ② 짝이 없어 외로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
宣

베풀 선

誓

맹세할 서

선서(宣誓)

㉟ ① 여럿 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함. 『입단 선서/혼인 선서/대표 선수가 선서를 했다.』 ② 『법』 법정에서, 증인 또는 감정인이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는 일. 선서 후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. 『법정에서 증인의 선서가 있었다./형식대로의 선서를 시키고 난 뒤 검사가 물었다. 《이병주, 행복어 사전》 ③ 『법』 공무원이 어떤 직위에 취임할 때에,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맹세하는 일. 『대통령 취임 선서.』

占

점칠 점

卜

점 복

점복(占卜)

㉟ ① 점치는 일. 『그는 신통한 점복으로 인근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.』 ② 점술과 복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. ≡복점(卜占).



避

피할 피

暑

더울 서

피서(避暑)

㉟ 더위를 피하여 시원한 곳으로 옮김. 『피서 인파/피서를 가다/피서를 즐기다/바닷가로 피서를 떠나다.』

盜

훔칠 도

賊

도둑 적

도적(盜賊)

㉟ =도둑. 『도적의 무리에게 재물을 빼앗기다/도적을 물리치다/산속에서 도적을 만났다.』

叔

아재비 숙

姪

조카 질

숙질(叔姪)

㉟ 아저씨와 조카를 아울러 이르는 말. 『숙질 사이.』

亭

정자 정

閣

문설주 각

정각(亭閣)

㉟ =정자(亭子). 『정각을 짓다.』





# 脣

입술 순

# 齒

이 치

순치(脣齒)

㉮ ①입술과 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. ②입술과 이처럼 이해관계가 밀접한 둘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『지역 사회와 학교는 순치의 관계니까 국외자는 아니죠. 《윤홍길, 묵시의 바다》

# 奇

기이할 기

# 跡

자취 적

기적(奇跡/奇迹)

㉮ ①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. ㄴ이적(異跡) [2] . 『기적을 행하는 초능력자/기적을 바라다/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전력상으로는 우리가 이기기 힘들겠다./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적의 명약이란 없다./천 길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고도 부러진 데 하나 없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었다.②『중』신(神)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.

# 摘

딸 적

# 要

구할 요

적요(摘要)

㉮ 요점을 뽑아 적음. 또는 그 기록.



# 乾

마를 건

# 材

재목 재

건재(乾才)

㉮ 맡은 일을 감당하며 처리하는 재주.

# 僧

승려 승

# 舞

춤출 무

승무(僧舞)

㉮ 『예』 장삼과 고깔을 걸치고 북채를 쥐고 추는 민속춤. 끝내 수행을 이루지 못한 고뇌를 법고를 두드려서 잊으려는 파계승의 심정을 나타낸다. ㄴ중춤. 『승무를 추다/바라춤 나비춤에 뽑힌 옛되고 아름다운 비구니들이 승무를 못 출 리가 없다. 《유주현, 대한 제국》

# 靜

고요할 정

# 寂

고요할 적

정적(靜寂)

㉮ 고요하여 괴괴함. 『정적에 잠긴 산속/정적을 깨뜨리다/정적이 감돌다/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다./대낮부터 개구리란 놈들이 여기저기서 꾸르륵대는 소리가 뜰의 정적을 더해 주는 것 같았다. 《정환숙, 고가》/복도에 흐르는 썰렁한 냉기, 삭막한 정적이 배어 있는 파르스름한 형광등 불빛, 빈 의자들, 시간이 너무 늦었다. 《서영은, 술래야 술래야》





# 修

다을 수

# 繕

기을 선

수선(修繕)

㉡ 낚거나 헌 물건을 고침. ㉢ 옷 수선/수선만 잘하면 이 구두는 새것같이 되겠다.

「비」 수리(修理).

# 壹

한 일

# 貳

두 이

일이(壹貳)

㉡ 一, 二의 갖춘자. 보통 쓰는 한자(漢字) 보다 획을 더 많이 하여 모양과 구성이 전혀 다르게 된 한자.

# 刃

칼날 인

# 創

상처 창

인창(刃創)

㉡ 칼날에 다친 흉. ㉢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흉물스러운 인창이 남아 있었다.

「비」 인상(刃傷).

# 遙

멀 요

# 遠

멀 원

요원(遙遠/遼遠)

‘요원하다’의 어근. ‘까마득’, ‘까마득함’, ‘땀’으로 순화.



# 閏

윤달 윤

# 年

해 년

윤년(閏年)

㉡ 『천』 윤달이나 윤일이 든 해. 지구가 태양을 한 번 공전하는 데에 365일 5시간 48분 46초 걸리므로 태양력에서는 그 나머지 시간을 모아 4년마다 한 번 2월을 하루 늘리고, 태음력에서는 1년을 354일로 정하므로 계절과 역월(曆月)을 조절하기 위하여 19년에 일곱 번, 5년에 두 번의 비율로 1년을 13개월로 하여 윤년으로 만든다. ㉢ 과년(棼年).

# 藝

예술 예

# 苑

동산 원

예원(藝苑/藝園)

㉡ ① 예술가들의 사회를 아름답게 이르는 말. ㉢ 예림. ② 『역』 전적(典籍)이 모이던 곳.

# 隨

따를 수

# 筆

붓 필

수필(隨筆)

㉡ 『문』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. 보통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뉘는데, 작가의 개성이나 인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유머, 위트, 기지가 들어 있다. ㉢ 만문(漫文)·상화(想華). ㉣ 그는 수필 두 편을 써서 잡지사에 기고하였다.





# 脱 獄

벗을 탈 감옥 옥

## 탈옥(脫獄)

㉡ 죄수가 감옥에서 빠져나와 달아남. ㄴ탈감. ㉢탈옥을 결심하다/탈옥을 감행하다/탈옥에 실패하다.

「비」 뇌탈(牢脫). 월옥(越獄). 파옥(破獄).

# 升 揚

오를 되 승 오를 양

## 승양(升揚)

㉡ 벼슬이 오름.

「비」 교천(喬遷). 등진. 승계(陞階). 승진(昇進). 영전(榮轉).

# 敵 手

원수 적 손 수

## 적수(敵手)

㉡ ①재주나 힘이 서로 비슷해서 상대가 되는 사람. ㄴ대수12(對手). ㉢너는 나의 적수가 아니니 물러가라./체력 면에서도 둘은 서로 좋은 적수인 셈이었다. 《이문열, 황제를 위하여》/상대는 매번 바뀌었지만 모두 다 그의 적수는 못되었다. 《이동하, 장난감 도시》 ②적의 손길. ㉢적수에 걸려들다.



# 略 式

다스릴 락 법 식

## 약식(略式)

㉡ 정식으로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고 간추린 의식이나 양식. ㉢약식 보고/약식으로 인사하다/약식 회의를 열다/이번 행사는 약식으로 치릅니다.

# 象 牙

코끼리 상 어금니 아

## 상아(象牙)

㉡ 코끼리의 어금니. 위턱에 나서 입 밖으로 뿔처럼 길게 뻗어 있다. 맑고 연한 노란색이며 단단해서 갈면 갈수록 윤이 난다. 악기, 도장, 물부리 따위의 공예품을 만드는 데 쓴다.

# 雜 技

섞일 잡 재주 기

## 잡기(雜技)

㉡ ①잡다한 놀이의 기술이나 재주. ㉢그는 잡기에 능하다./내가 점을 치고 관상을 보는 것은 말하자면 잡기지요. 《박경리, 토지》 ②잡스러운 여러 가지 노름. ㄴ외기(外技). ㉢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노름 잡기, 게집질 안 하고, 착실하고 의리 있고 모두 다 집집마다 굶는 사람이 없다는 거라. 《박종화, 임진왜란》/더욱이 이 도사 자신이 단 한 번이라도 주색이나 잡기를 하여 빛이 늘 어났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... 《김말봉, 찔레꽃》





惡

악할  
싫을  
악  
오

寒

추울  
한

오한(惡寒)

㉠『한』몸이 오슬오슬 춥고 떨리는 증상. ㉡오한증. ㉢『오한이 나다/오한이 가라앉다/오한이 들다/나는 오한에 떨며 잠에서 깬다./그는 취기는 거의 가셨으나 온몸이 빗물에 젖어 전신으로 으스스한 오한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. <홍성원, 육이오>』/의식을 잃을 만큼 고열이 나고, 배까지 아파 왔다.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다. 하숙방에 누운 채 오한에 시달렸다. <한승원, 포구의 달>

妄

허망할  
망

設

말씀  
설

망설(妄說)

㉠=망언(妄言). ㉡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함. 또는 그 말. ㉢망담. ㉣『망언을 일삼다/망언을 남발하다/망언을 퍼붓다/강화 회담이란 원래가 흥정인데 땅도 돈도 안 주고 어떻게 화평을 가져오겠다는 것인지 이 대인의 말은 헛된 망언입니다. <유주현, 대한 제국>

芳

꽃다울  
방

菊

국화  
국

방국(芳菊)

㉠ 향기가 그윽한 국화.



姿

맵시  
자

勢

기세  
세

자세(姿勢)

㉠ ①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. ㉡몸자세. ㉢『자세를 가다듬다/자세를 고쳐 앉다/자세를 바로 하다/그는 좀 전의 자세대로 앉아 있었다./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굽는다./남자 두 사람이 엉거주춤 일어서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. <박경리, 토지>』/그때까지도 사내는 목석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는 뻣뻣한 자세로 마당 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다. <윤홍길, 묵시의 바다>②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이나 태도. ㉣『정신 자세/학자로서의 자세/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다/그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./일하는 데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./저는 그토록 정확을 기하려는 그의 성실한 자세를 작가의 귀감으로 여겨 언제나 존중하고 있지요. <이영치, 흐린 날 황야에서>

唾

뱉을  
타

棄

버릴  
기

타기(唾棄)

㉠ 업신여기거나 아주 더럽게 생각하여 돌아보지 않고 버림. ㉢『타기를 당하다/너무 많은 세상사의 모든 것을 일찍 경험해 버린 타기의 모습을 나는 그녀에게서 읽고 있었다. <김주영, 외촌장 기행>



# 香

향기 향

# 臭

냄새 취

향취(香臭)

㉮ =향내. ㉮향취를 풍기다/향취가 진동하다/술의 향취를 즐기다.

# 防

막을 방

# 止

그칠 지

방지(防止)

㉮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음. ㉮병충해 방지/재해 방지/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다/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./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위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.

# 勤

부지런할 근

# 勉

힘쓸 면

근면(勤勉)

㉮ 부지런히 일하며 힘씀. ㉮근면과 협동/근면을 삶의 지표로 삼다/감투를 유지하는 데 대체로 두 가지 길이 있다. 하나는 성실과 근면으로 맡은 바 직분을 다하는 길이다. <하근찬, 야호>



# 隱

숨길 은

# 蔽

덮을 폐

은폐(隱蔽)

㉮ ①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김. ②『군』적에게 관측되지 아니하도록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인원이나 장비, 시설 따위를 숨기는 일. ③『군』=은폐물.

# 措

놓을 조

# 置

둘 치

조치(措置)

㉮ 제기된 문제나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움. 또는 그 대책. ㉮신속한 조치/조치를 내리다/조치를 강구하다/법적 조치를 취하다/연설문 안에는 직접 치러야 할 주민과 성청 사이의 행정적 조치들에 관하여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. <황석영, 무기의 그늘>

# 鑄

쇠 불릴 주

# 造

만들 조

주조(鑄造)

㉮ 녹인 쇠붙이를 거푸집에 부어 물건을 만듦. ㉮고주(鼓鑄)·용조(鎔造)·조주(造鑄)·주성(鑄成).





# 往 診

갈 왕 살필 진

## 왕진(往診)

㉮ 의사가 병원 밖의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찰함. ㉮ 왕진 가 방/왕진을 가다/의사로서 해 줄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험한 산길에 어린것을 내려 보내 왕진을 청할 까닭이 없잖아요? 《박완서, 오만과 몽상》/의사는 피하 주사를 한 대 놓고 왕진 가방에 청진기를 챙겨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다. “입원을 시켜 주십시오…” 《이병주, 관부 연락선》

# 批 准

칠 비 승인할 준

## 비준(批准)

㉮ 『법』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, 동의하는 절차.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. ㉮ 국회 비준/비준을 거부하다.

# 隻 眼

외작 새 한 마리 척 눈 안

## 척안(隻眼)

㉮ ①외눈. 애꾸눈. ②한쪽 눈이 찌그러진 것. 또는 그런 사람. ③남다른 식견.

# 礎 石

주춧돌 초 돌 석

## 초석(礎石)

㉮ ①『건』=주춧돌. ②어떤 사물의 기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㉮ 초석이 되다/초석을 놓다/선생의 용력과 지혜라면 가히 새 왕조의 초석을 이룰 만한 것입니다. 《이문열, 황제를 위하여》





## 索引

ㄱ	가정(家庭) ..... 46	ㄴ	난로(暖爐/煖爐) ..... 23
	간과(干戈) ..... 13		노출(露出) ..... 27
	강락(康樂) ..... 44		능통(能通) ..... 43
	강화(強化) ..... 42	ㄷ	당위(當爲) ..... 31
	객사(客舍) ..... 27		도적(盜賊) ..... 49
	건재(乾才) ..... 51		도주(逃走) ..... 3
	겸비(兼備) ..... 42		독재(獨裁) ..... 10
	경조(慶弔) ..... 26		돈독(敦篤)-하다 ..... 21
	계몽(啓蒙) ..... 34		두절(杜絕) ..... 7
	계통(系統) ..... 4		득의(得意) ..... 13
	고려(考慮) ..... 25		등본(謄本) ..... 22
	고집(孤蝶) ..... 48	ㄹ	만성(晩成) ..... 15
	고초(苦楚) ..... 41		말로(末路) ..... 11
	곡병(曲屏) ..... 37		말설(妄說) ..... 56
	공란(空欄) ..... 22		매장(埋葬) ..... 9
	과수(果樹) ..... 6		명복(冥福) ..... 25
	과욕(寡慾) ..... 32		모양(貌樣/模樣) ..... 18
	관용(寬容) ..... 31		모욕(侮辱) ..... 14
	교사(敎唆) ..... 7		모표(帽標) ..... 12
	교정(矯正) ..... 20		목격(目擊) ..... 22
	구축(驅逐) ..... 17		묘목(苗木) ..... 35
	굴신(屈伸) ..... 14		문란(紊亂) ..... 24
	궤도(軌道) ..... 28		문벌(門閥) ..... 16
	귀경(貴庚) ..... 42		미안(未安) ..... 6
	근면(勤勉) ..... 58	ㅁ	발굴(發掘) ..... 16
	금석(今昔) ..... 38		
	기마(騎馬) ..... 7		
	기적(奇跡/奇迹) ..... 50		



방국(芳菊) .....	56	수선(修繕) .....	52
방벌(放伐) .....	4	수수(授受) .....	45
방지(防止) .....	58	수필(隨筆) .....	53
배반(背反/背叛) .....	15	숙질(叔姪) .....	49
벽지(僻地) .....	24	순치(脣齒) .....	50
변호(辯護) .....	17	순환(循環) .....	47
병렬(竝列) .....	23	승무(僧舞) .....	51
봉제(縫製) .....	33	승양(升揚) .....	54
부연(敷衍/敷衍) .....	37	시비(是非) .....	15
부유(富裕) .....	14	시하(侍下) .....	46
부탁(付託) .....	35		
분규(紛糾) .....	36	ㅇ 야기(惹起) .....	19
분석(分析) .....	37	약식(略式) .....	55
비준(批准) .....	60	약제(藥劑) .....	45
빈번(頻繁)-하다 .....	29	연유(煉乳) .....	11
		연유(緣由) .....	34
ㅅ 사세(辭歲) .....	11	연적(硯滴) .....	3
사칭(詐稱) .....	40	열람(閱覽) .....	4
상담(臥薪嘗膽) .....	5	예원(藝苑/藝園) .....	53
상아(象牙) .....	55	오한(惡寒) .....	56
상자(箱子) .....	39	와해(瓦解) .....	29
상해(桑海) .....	36	왕진(往診) .....	60
서행(徐行) .....	18	요원(遙遠/遼遠) .....	52
석별(惜別) .....	16	용렬(庸劣)-하다 .....	38
석학(碩學) .....	36	용안(龍顏) .....	45
선서(宣誓) .....	48	우려(憂慮) .....	21
성탄(聖誕) .....	17	우롱(愚弄) .....	8
세속(世俗) .....	43	유념(留念) .....	38
소명(召命) .....	29	유사(類似) .....	42
소문(所聞) .....	43	윤년(閏年) .....	53
소찬(素餐) .....	10	은폐(隱蔽) .....	59
손해(損害) .....	40	이왕(已往) .....	8
송축(頌祝) .....	28	이원(梨園) .....	35





이치(理致) .....	44
인창(刃創) .....	52
일이(壹貳) .....	52
일제(一齊) .....	9

자	자선(慈善) .....	10
	자세(姿勢) .....	57
	잡기(雜技) .....	55
	적수(敵手) .....	54
	적요(摘要) .....	50
	전횡(專橫) .....	30
	절개(節概/節介) .....	26
	점복(占卜) .....	48
	정각(亭閣) .....	49
	정돈(整頓) .....	47
	정성(精誠) .....	41
	정적(靜寂) .....	51
	제압(制壓) .....	39
	조치(措置) .....	59
	종반(終盤) .....	19
	주선(周旋) .....	19
	주조(鑄造) .....	59
	죽염(竹鹽) .....	30
	지용(智勇) .....	32
	지원(支援) .....	41
	지휘(指揮/指麾) .....	32

차	차감(差減) .....	12
	척안(隻眼) .....	60
	천시(賤視) .....	18
	청운(靑雲) .....	44
	체포(逮捕) .....	27
	초석(礎石) .....	61

촌가(寸暇) .....	20
추파(秋波) .....	5
추향(趨向) .....	23
축소(縮小) .....	40
취지(取旨) .....	30

깨	쾌청(快晴)-하다 .....	12
---	-----------------	----

타	타기(唾棄) .....	57
	탁발(托鉢) .....	28
	탈옥(脫獄) .....	54
	토양(土壤) .....	24

폐	폐업(廢業) .....	20
	포구(浦口) .....	33
	피부(皮膚) .....	33
	피서(避暑) .....	49

함	함정(艦艇) .....	47
	핵막(核膜) .....	12
	향취(香臭) .....	58
	허락(許諾) .....	13
	현월(弦月) .....	3
	혈루(血淚) .....	7
	호기(浩氣) .....	6
	호소(呼訴) .....	21
	호언(豪言) .....	31
	화목(和睦) .....	34
	화폭(畫幅) .....	39
	환난(患難) .....	9
	휴게(休憩) .....	8
	희열(喜悅) .....	25